지역 소식통

부안, 농업인단체 간담회

권익현 부안군수는 18일 군수실에서 부안군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김상곤)을 비롯하여 농업관련 단체 회장 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취임한 농업관련 단체 신임회장들의 축하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향후 군의 농정 방향을 설명했다. 2021년 부안군은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등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50농가 참여와 함께 시작되는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공공급식 관계시장을 구축해 먹거리 복지를 해결하고, 부안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설립(21년 5월 예정)으로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군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단체연합회 김상곤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과 상생하면서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제279회 임시회를 18일 개회해 26일까지 9일동안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고창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과·관·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번 회기에 제출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 차남준 의원, 일반위원 강성모, 정만수, 김수영, 김영환 등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은 5명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향후 결산검사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최인규 의장은 "군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3월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고창군, 요양병원·요양시설 65세 미만 대상자부터

고창군이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8세 이상 전 군민 4만86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종기관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요양시설 접종),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접종대상이 되면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에 사전예약을 해야 맞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다.

개인별 접종시기는 백신수급에 맞게 대상자가 정해지면 군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천선미 부군수를 단장으로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예방접종센터 장소로 청소년수련관체육관을 선정하고, 현재 센터설치와 인력 확보 등 접종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백신 보급계획에 따라 3월부터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대응요원 접종을 1분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하, 임산부에 대해선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가 확인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입원자와 종사자는 자체 접종을 진행하며,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접종과 보건소내 접종을 병행 시행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노인재가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 선정 후 홈페이지 안내)에서 접종 할 수 있다.

하반기(3분기)부턴 예방접종센터(청소년수련관체육관)를 운영하며 18~64세,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와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예방접종센터에선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게 된다.

또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실시되며,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이 진행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한다.

천선미(부군수)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군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시설 재개장

모든 이용객 발열 체크 후 입장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된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가 18일 재개장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임시 휴장했으나, 이번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천사 히어로즈 재개장을 결정했다.

이곳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타워클라이밍과 스크린 야구장, 트램펄린 등 17종 39개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다.

놀이 활동가와 안전요원도 배치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편의공간도 만들어졌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당 이용객은 150명으로 제한되며, 현장 접수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청소년은 1시간에 9,000원, 성인은 8,000원이며, 1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이 추가된다. 정읍시민의 경우 2,000원이 감면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모든 입장객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해야 하며,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놀이시설을 재개장하게 된 만큼 이용객께서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정읍시는 18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3개 분야 62개 사업, 172개소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 의원과 농업 관련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심의 후 확정된 주요 사업은 식량작물과 소득작목, 농촌사회분과 등 3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1,953만원이다.

심의 결과, 식량작물에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 등 21개 사업에 39억5,778만원, 소득작목에는 지중냉온풍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시범 등 11개 사업 4억7,385만원을 확정했다.

또, 농촌사회분과는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등 30개 사업 13억8,79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완옥 소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소득향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정착 촉진으로 고령화된 농촌 인력구조를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첨단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홍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난 17일 '제1기 청렴시민 감사관' 10명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렴시민 감사관 출범식

정읍시, 공직자 부조리 행위 제보 등 청렴시책 참여

정읍시는 지난 17일 청렴한 정읍시의 초석이 될 '제1기 청렴시민 감사관' 10명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청렴시민 감사관 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 감사관은 행정·회계·건설·건축·법률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청렴시민 감사관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공직자 부조리와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원장에 선출된 송양조(전 공무원) 위원장은 "그간 다져온 행정경력을 경험으로 앞으로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유진섭 시장은 "감사관 각자 본인의 전문 분야 지식을 마음껏 발휘해 청렴시민 감사관 제도가 시민 체감형 공직자 청렴 추진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한 정읍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청렴시민 감사관 위촉식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청렴 선포식 개최, 청렴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 체감형 공직자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수소연료전지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부안군은 총 21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은 후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15일 현재 부안군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단체로 접수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해 1대당 36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50대의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